

## 행사 후에도 학생회에 변화가 없어요 ❷

Q) 저는 작은 교회의 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찬양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웠고, 학생들의 반응도 무척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주 학생회 예배의 참석 인원은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지금 저희 교회 학생회는 '찬양의 밤'을 열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포천에서 은미 드림

A)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활동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 더 큰 신앙의 활력소를 얻고, 침체된 생활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학의 밤'이나 '찬양 집회' 같은 행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생회 자체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행사는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학생회 부흥과 개인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 교회에서는 여기저기서 대규모 찬양 집회를 갖고 있고 도시 학생들은 그런 행사에 접촉할 기회가 많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생회는 어른들의 도움이 없으면 작은 행사도 치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요청한 자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해 봐야겠다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매와 그 교회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하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뜻은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뿐입니다. 학생들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감사, 변화가 없어도 감사, 남들이 잘못했다고 질책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시고 상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애초부터 잘못 시작한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행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그 휴유증은 상당히 오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획하는 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 가운데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학생회의 부흥은 학생 스스로의 신앙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의 행사는 학생들이 분명한 목적의식만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학

생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가 "왜 행사를 하느냐?" 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행사는 학교 축제 때 갖는 발표회나 공연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 앞에 한번 보여주려는 기분으로 행사에 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잘되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학생회 임원과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행사는 연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행사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이번 행사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학생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청장을 만들고 광고지를 돌리고 포스터를 붙이는 열심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행사의 주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초청하느냐, 무엇을 보여주려고 초청하느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주제와 의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극 연습이나 찬양 연습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행사를 위한 학생 전체의 신앙심입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행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헌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헌신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전도될 것이며,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에 충만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행사를 통하여 틀림없이 우리 학생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르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행사를 열어 많은 학생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는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행사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학생회의 모습에 침체되고 좌절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마치 잘못된 행사를 한 것처럼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행사를 결코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학생회를 잘 이끌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와 같은 몇 사람의 헌신자가 더 있다면 교회 부흥과 학생 전도를 위해 더 큰일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세요.

글/김종원(청소년문화가족)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